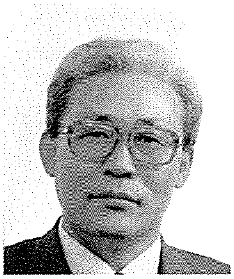
젖 주고 약 주며 살코기도 주는
고마운 돼지님

돼지는 사람들에게 '효자' 노릇을 하고있다. 털은 깎아서 솔로, 가죽은 피혁으로, 살코기와 기름은 말할 것도 없고 똥까지 퇴비로 쓰고 있으니 돼지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돼지의 췌장을 떼어내 인슐린을 짜서 써왔으며 최근에는 돼지의 장기를 떼어내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도 진행돼고 있다. 젖주고 약주며 살코기도 주는 돼지의 세계를 알아본다.



權 伍 吉
〈강원대 교수/생물학〉

사람이라는 동물이 머리 하나는 좋아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 먹는 것을 알아냈으며, 가축 중에서도 들소와 산돼지를 소, 돼지로 순치 사육해서 잡아 먹는다. 돼지만 봐도 털은 깎아 솔로 쓰고 가죽은 피혁으로, 살코기 기름은 설명이 더 필요없으며, 내장 중에서도 대장은 피 섞어 순대를 만들어 먹는다. 똥은 퇴비로 쓰니 어디 하나 버릴게 없다.

췌장은 떼어내 인슐린으로

그런데 사람은 육류로서의 돼지가 아니고 이자(췌장)를 떼내어 인슐린을 짜서 써 왔는데 요새는 숫제 장기를 뜯어내어 사람에게 이식하려고 하는가 하면 최근에 와서는 공장 대신 돼지를 약품 제조창으로 쓸 작정이다. 혈우병인 사람에게 주사하는 C-단백질이나 혈전(血栓, 핏덩이)을 녹게하는 약 등을 이미 돼지의 젖에서 얻어내고 있으니 이것들은 사람 피에 조금 들어있어서 값이 무척 비싸나 돼지 공장에서 다량으로 뽑아내니 값이 무척 싸고 돼지에는 AIDS바이러스(HIV)가 없으며 C-간염바이러스도 없기에 기증자(사람)의 피보다 더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다.

20년 전만해도 꿈에도 생각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도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인데, 돼지의 수정란에 필요한 사람의 유전자(DNA)를 집어넣어서 대리모(代理母)에서 키워 새끼를 얻고 그 놈들을 키워 필요한 약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동물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돼지(동물)를 제니(Genie)라 한다. 그런데 사람의 유전자를 가진 돼지는 젖샘(乳腺)에서만 유전자 발현이 된다고 하는데 복제양 돌리(Dolly)도 어미의 젖샘 세포를 조작하여 만들었지 않는가. 실제로 제니의 돼지 젖에서 사람보다 2백배나 많은 C-단백질을 얻고 있다고 한다. 과학의 칼을 잘만 쓰면 이렇게 멋드러진 일이 벌어진다.

이미 토끼의 유전자를 쥐의 수정란에 집어넣어 쥐가 토끼의 헤모글로빈을 만들게 하였고 또 쥐의 젖샘에 다른 유전자를 넣어 젖에서 다른 단백질을 수확한다거나 쥐나 양의 수정란에 사람 유전자를 넣는 앞 실험들이 행하여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장균이나 초파리가 실험 대상물로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 고등동물로는 돼지가 으뜸이다. 돼지는 사육기간이 짧고 새끼를 많이 낳는 점이 대장균이나 초파리와 공통점이다. 게다가 젖도 많이 만들어 1년에 300 *l* 이상이 되니 약(품)도 그만큼 많이 얻을 수가 있다. 정말로 이제 돼지녀석이 아니라 돼지님이라 불러야 할 판이다.

돼지 젖꼭지는 거대한 공장

실제로 한 가지 약을 만들기 위해서 큰 공장을 짓고 비싼 기구에 고급 배지를 만들어 넣고 일정한 온도에서 세포를 조직 배양하여 그것들에서 약을 뽑아내는 것이라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돼지는 잡식성으로 먹새가 좋은 동물에다 특별히 온도도 맞춰줄 필요가 없으니 싸게 키울 수 있고 그래서 값싼 약을 얻는다. 우습게도 암돼지의 젖꼭지가 바로 거대한 공장 대역을 한다는 것이다.

머잖아 돼지로 만든 약을 먹거나 주사맞고 또 돼지의 심장이나 간을 달고 다닐 날도 멀지 않았다. 사람의 콩팥이나 간을 판다는(산다는) 장기매매가 성행한다는데 어서 빨리 이 연구를 진행시켜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ST